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아일랜드, Anglo Irish Bank 파산위기로 금융시장 불안 증대

- Anglo Irish Bank의 파산위기에 따라 9월 말 현재 아일랜드의 국가 자금조달 비용은 그리스가 IMF등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1개월 전의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  - 9월 28일 Anglo Irish Bank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규모 발표 이후 아일랜드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5bp 상승하여 6.72%에 달함.
  - 그러나 이러한 기록적인 국채수익률 상승은 유럽중앙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아일랜드 국채를 매입하는 등 시장 개입을 한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큰 것으로 보임.
-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부동산시장 붕괴로 파산위기를 겪고 있는 Anglo Irish Bank에 추가 공적자금으로 5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Anglo Irish Bank에 대한 전체 공적자금은 3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임.
  - 아일랜드 부실은행들에 대한 총 공적자금 규모는 Anglo Irish Bank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을 포함할 경우 500억 유로에 달하며 2009년 아일랜드 GDP의 1/3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됨.
-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Anglo Irish Bank의 기존 부채 인수, 구조조정, 기타 비보증채권에 대한 처리방안도 밝힘.
  - 중앙은행은 160억 유로 규모의 Anglo Irish Bank 기존 부채에 대해 보증을 연장하기로 함.
    - 중앙은행은 2008년 Anglo Irish Bank의 파산을 막기 위해 6개 주요 은행에 대해 2년 만기 부채 지급보증을 단행한 바 있음.
  - 또한 은행의 예금과 지급보증채권사업부를 분리하는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.
  - 자산회복은행(Asset-Recovery Bank)은 비보증채권(선순위채권 420억 유로, 후순위채권 240억 유로)에 대한 채무를 인수할 계획이며 아일랜드자산관리청(National Asset Management Agency)은 가장 부실한 자산인 불량부동산 채무를 인수할 예정임.
    - 선순위채권 소유자에 대한 기득권은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보임.

(Financial Times 9/28, 9/30)